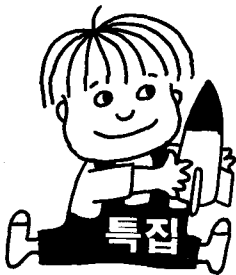


소아당뇨병의 발생율과 역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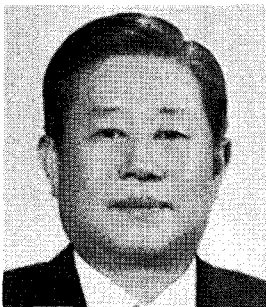


소아당뇨병이라는 것은 소아에서 발생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인슐린주사를 맞아야 하는 특성 때문에, 이것을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Insulin Dependent — Diabetes Mellitus, IDDM) 이라고 부르고 이에 비해 성인당뇨병은 인슐린의 의존성이 아니기 때문에 『비인슐린 의존성 당뇨병』(Non-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 NIDDM) 이라고 부르고 있어 **성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

다.

매년 새로 발생하는 만 15세까지의 소아당뇨병의 발생을 보면, 지역과 인종에 따라 그 차가 심하며, 전 세계를 두고 볼때 약 40배의 차이를 보고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는 북구라파의 핀란드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적게 보고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본토다.**

이와같은 크나큰 발생율의 차이는 소아당뇨병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고 광 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소아과〉

소아당뇨병은 일생동안 인슐린주사를 맞아야 하며, 심한 장기적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당뇨병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역과 인종에 따라 발병 률 큰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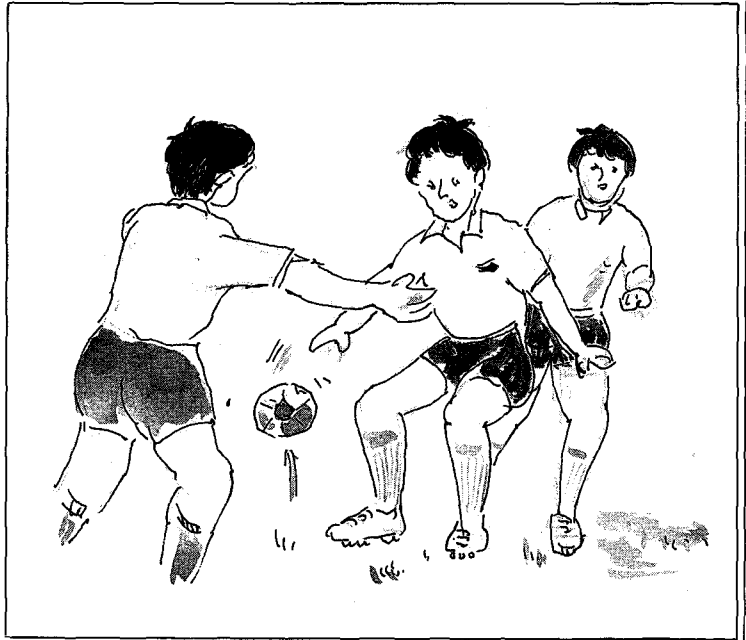
소아당뇨병의 중요성이라 할 또하나의 의의는, 장차 만성질환중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며, **심한 장기적 합병증을 동반한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하여, 심장·맥관질환, 만성 신질환, 다리의 절단, 시력이 떨어진다는 등 달갑지 못한 합병증이 수반되고, **청년기에 인슈린 의존성 당뇨병환자의 사망율이 정상 동년배에 비해서 매우 높다** (10배이상)는 통계로 보아도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발생율

현재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미국 피쓰버그 대학이 주동하여 공동연구를 시행중에 있지만, 우선 잠정적으로 보고된 것을 이에 소개해 보면 다음도표와 같다.

〈도표-1〉

| 나라 | 년간 발생율 [/100,000(0-14세)] | |
|---------|-------------------------------|----|
| 핀란드 | 30 | |
| 노르웨이 | 20 | |
| 미국 | 백인 | 18 |
| | 흑인 | 12 |
| 뉴질랜드 | 14 | |
| 폴란드 | 5 | |
| 일본(북해도) | 1.7 | |
| 한국(서울) | 0.7 | |
| 중국(천진) | 0.7 | |



이상의 통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핀란드와 한국과는 만15세까지 소아 10만명당 매년 새로 발생하는 소아당뇨병환자가 약 40배 이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 착안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발생기전과 원인을 밝히고자 많은 노력을 학자들은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남·여 발생비율

세계를 통하여 발생과 이환율을 살펴보면, 소아당뇨병의 **발생율이 아주 낮은 나라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발생**하고, 그 발생율이 높은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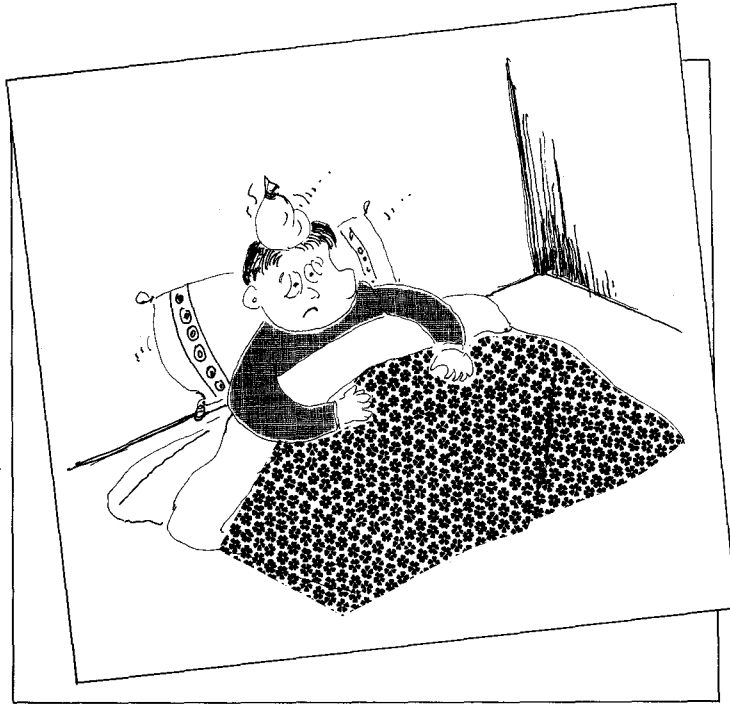
에서는 남아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으며, 그 차이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사회계층과 발생


일본이나, 미국, 구라파에서 나오는 보고를 보더라도 소아당뇨병의 이환율에서는 경제·사회계층의 관계없이 전계층에 걸쳐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계절성

소아당뇨병 발생에 있어 바이러스감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커피 한잔의 열량은 얼마나 될까?
커피 한잔에는 보통 7g의 설탕이 들어가므로 프림까지 넣을 경우 약 40kcal입니다.

 귤 한개의 칼로리는?
중간크기(100g)의 귤 하나에 약 50kcal입니다.

 과일중에서 가장 염분이 적은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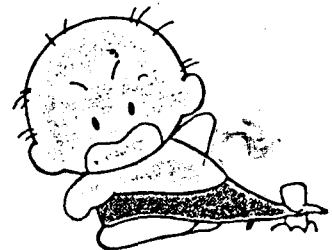
감염이 많이 되는 봄, 가을, 동계에 주로 발생된다. 여름철의 발생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하다.

발생연령

미국이나 구라과에서는 11~13세 연령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 통계를 아니지만, 서울대학의 통계를 보면 3살부터는 만 15세까지 비슷한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집계를 하여 파악되어야 하겠다.

가족내 발생 위험도

인슈린 의존성 당뇨병이 한 가족내 부모나 형제간에 발생하는 위험도는 미국이나, 구라과는 보고가 적지않게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이환률이 매우 낮고, 서울대학에서는 아직 한명도 발견되고 있지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가족이 인슈린 의존성 당뇨병에 걸리는 위험가도 아주 적지않은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런면도 앞으로 더 조사 관찰하여야 할 사항이다.㉔



성인병 관리와 예방에 앞장서는

月刊 당뇨

구독신청은
743-9482~3
745-2421~3